파프리카 990㎡당 1453만원 수익 최고

농업기술원, 지난해 전남 주요 작목 수익 분석

장미·오이·딸기 順… 노지 작물은 복숭아 '최고'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작목은 시설재배를 통한 파프리카(착색단고추)로 조사됐다.

16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익성 조사를 한 결과 파프리카가 10a(990㎡)당 1453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어 장미 1401만원, 오이 1340만원, 딸기 1338만원 순이었다.

이들 작목은 모두 비닐이나 유리온실 등 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재배 작목이다.

파프리카와 장미는 주로 일본 수출에 의존하는 품목으로 엔저 현상 심화로 채산성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지(露地)재배 작물로는 복숭아가 52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과 395만원, 포도 326만원, 무화과 321만원이었다.

전년대비 소득이 늘어난 작목은 시설가지와 대파, 복숭아, 느타리버섯 등 31개 작목이었다. 반면 미나리, 무화과, 배, 월동배추 등 23개 작목은 소득이 줄어들었다.

이 조사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도내 741 농가를 대상으로 54개 작목의 수익을 분석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농가별, 작목별 소득, 경영비 등을 토대로 경영진단과 컨설팅 등 경영관리 능력을 높이고 개선방향을 찾아 해법을 농가에 제공할 계획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10a 당 농산물 수익성

파프리카	1453만원
장미	1401만원
오이	1340만원
딸기	1338만원

다도해 국제요트대회에 참가한 요트 30여척이 16일 오후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수역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세계에 알린 다도해 풍광

국제요트대회 성황리 마쳐

전남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2박3일간의 열전을 벌인 '2013 다도해 국제요트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이번 국제요트대회에는 영국·프랑스·러시아 등 5개국에서 30여 팀이 참가해 내해 경기와 외해 경기로 나눠 진행됐다.

대회에 참여한 외국팀들은 전남의 해안선, 동양화처럼 펼쳐진 섬, 갯벌 등 바다와 섬이 빚어낸 아름다운 풍광에 취해 다음 대회에도 꼭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랑스 아칸니토팀 관계자들은 "전남의 인심, 음식, 다도해의 풍광 등은 세계 여느 유명지역에도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정부차원 지원"

윤진숙해수부장관 밝혀

내년에 개최하는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16일 완도군에 따르면 14일 오후 완도군 해양연구센터에서 열린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 현장 세미나에 참석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 해조류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완도에서 국제 해조류박람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 세미나가 국내 해조류 산업의 지식과 지혜를 결집해 해조류박람회 성공과 해조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 세미나에는 윤 장관과 포럼 소속 국회의원, 박준영 전남지사, 김종식 완도군수, 대학교수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해조류 산업의 미래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방살리기 포럼 공동 대표인 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자체·정부·국회가 유기적인 협력으로 해조류산업 육성과 해조류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기자 · 서부취재본부장 ejchung@kwangju.co.kr

진도 아리랑 체육공원 개장

진도군 내 최대 규모인 아리랑 체육공원이 15일 문을 열었다.

진도읍 동외리 3만5800㎡에 조성된 이 공원은 축구장, 게이트볼장(6면), 족구장(2면), 풋살장(1면), 농구장과 화장실,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축구장은 인조잔디로 국제규격 규모인 길이 105m, 폭 68m로 선수 대기실과 관람석은 물론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는 400룩스(LUS) 밝기의 조명시설이 설치됐다. 또 게이트볼장은 실내 2면과 실외 4면으로 6면을 시설해 눈·비가 와도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전천후 시설로 조성됐다.

공원 인근엔 공설 운동장, 체육관, 실내수영장 등이 있어 각종 대회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민선 5기 3년 성과와 과제

'글로벌 명품도시' 초석 다졌다

광양시

27개 기업 9700억 유치

4600여명 일자리 창출

민선 5기 마지막 1년을 앞둔 이성웅 광양시장은 16일 "광양 100년의 도약을 위해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시 발전의 꿈과 희망을 확고히 다졌으며 '글로벌 명품도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한 결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투명한 열린 행정, 창의적 경영 행정, 진정한 감동 행정으로 시민들과 함께 행복한 광양 만들기를 위해 박차를 가해왔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 시장은 먼저 301만㎡(약 91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27개 기업으로부터 97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46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낸 것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다.

각계 각층의 참여와 협조로 백운장학기금 214억원을 달성한 것은 물론 꾸준한 교육 투자를 통해 도내 최고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실현했으며 명문 교육도시의 반열에 우뚝서는 초석도 다져놓았다.

사회복지 예산을 시 예산의 21%인 878억원을 편성해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하는 한편 영세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한 점도 성과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4850억원에 이르는 포스코 켐텍의 투자 방침이 순조롭게 추진된 가운데 꿈의 소재인 탄소소재 산업을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등 후방산업 투자유치에도 적극 나서 그 성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미래지향적 녹색성장을 위해 자연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 광양 그랜드 프로젝트' 광양 8대 녹지벨트사업을 추진, 광양이 사람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명실상부한 녹색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연재해 예방대책, 재해위험시설 정비, 시민 안전의식제고 등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해 '삶이 편안한 안전도시'로 조성하겠다"며 "매력과 품격이 넘치는 광양르네상스 시대를 창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년째 새로운 운영 선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광양~일본 세모노세키 간 카페리 재취항 문제와 서울대 학술림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중인 백운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견속에 어떻게 성사시킬 것이지는 과제로 남아있다.

국민통합과 상생발전의 상징인 섬진강을 중심으로 영호남 동서통합지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1년안에 틀을 마련해야 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디에스중공업 창사19돌…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영암 대불산단내 크레인 중견업체인 디에스중공업(대표이사 김성길)은 지난 15일 무안군 백련리조트에서 창사 19주년 기념 워크숍을 갖고 임·직원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졌다. /나명주기자 mjna@

전남도 농어업 멘토링제 현장체험 인기

200여명 고교생 참여

전남도는 최근 고소득 농어가와 농수산특성화 고교생 멘토링제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농어가 현장체험 학습에 200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멘토에는 1억원 이상 고소득 농어가 50명이, 멘티는 12개 농수산 특성화고교생 242명이 참여했다.

농어민은 진로와 취업 상담, 현장 지식, 경험 전달, 고소득 노하우 전수 등에 나섰으며 학생들은 현장체험을 비롯해 일손 돕기, 창업 아이디어 발굴 등에 나섰다.

학생들은 신안 태평염전, 장성 학사농장 등을 방문해 수산가공식품 포장, 양식장 사료 공급, 딸기·채소 재배, 첨단유리온실 채소재배법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전남도는 멘토링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농어촌 청년일자리 창출 창구로 정착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2차 현장체험은 7월 1일부터 20일까지 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월 농어민-농수산 특성화 고교생 멘토링 협약식을 하고 현장체험 프로그램, 만남의 날 운영 등 학생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오광록기자 kroh@